

● 위령의 날 강론

기어이 주님을 뵙고야 말리라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종교학자들은 종교의 생성 이유를 사후 세계에 대한 무지와 불안 등으로 꼽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두려운 현실인 죽음, 사실 인간이 공포와 두려움에 싸이는 것도 죽음 때문입니다. 죽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 때로는 저주스러운 것이지만, 죽음 때문에 인간은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의 나약을 인정하기에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때문에 우리가 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퀴블러로스’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죽음에 자신을 내맡기기를 거부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왜 하필이면 죽음의 위협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분노를 느끼는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이미 절박하게 다가온 미지의 운명의 세력인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하느님과 담판을 하는 단계이며, 네 번째 단계는 체념과 절망이 섞인 의기소침의 단계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단계이다.”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끝내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 죽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버릴 수 없는 신앙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의 바다, 죽음의 위협이 넘실대는 파도를 헤쳐온 것입니다.

‘조르드 베르나노스’라는 작가는 작품 <가르멜 수녀들의 대화>에서 블랑쉬라고 하는 한 수녀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의 엄청난 고뇌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안심하고 고뇌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고 희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것은 죽음에 짓눌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의 은총을 믿기에 안심하고 고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시편 23, 4)

주님은 나의 목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사도 성 바오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2티모 3,16)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과 그에 대한 의문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극복한 희망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을 극복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확신에 찬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 25~26)

나아가 묵시록의 저자는 죽음에 대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짚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묵시 21, 3~4)

이제 우리는 이 같은 말씀에 희망을 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나날 동안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 성심수녀회의 ‘스즈키 히데코’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우리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남기고 이승을 떠납니다. 그것은 형태를 달리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다음과 같은 말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해주십시오. 살아 있다는 것은 한없이 고귀한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로 불렸던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1912~2007) 신부도 이같이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네 삶에서 황홀한 순간이며 환상적인 만남을 가져다주는 눈부신 순간일 수 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절대로 망쳐서는 안 되는 그 두 가지 일은 사랑하는 것과 죽는 것이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있는 우리들이 할 일은, 믿음과 사랑, 불멸의 희망, 용서 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매광하 신부 <춘천교구 갯세마니피정의집 원장>

-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교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11월 위령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최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최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기도합시다.
-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공소 13주년 생일 잔치
오늘 미사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바느기도회 안내
11월 12일 김근효 형제집

● 사목위원 임명 안내
그 동안 음양으로 수고 해주신 이상희 세라피아 자매를 행정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교구청과 안토니다니엘성당등의 대외 행정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 11월 영명축일 안내 - “축하합니다”
1일: 마리아 배병란 안드레아 고은형 2일 도비아 박영진 3일: 가를로 김근효 실비아 김영지 5일 :엘리사벳 윤명희 엘리사벳 이은남 엘리자벳 홍경숙 17일: 엘리자벳 신계연 30일 : 안드레아 구한힘 (각 구역장님께서는 축일 명단을 다시 정리하여 총구역장님께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음악의 밤 안내
11월 28일에 안토니다니엘성당에서 주최하는 음악의 밤에 우리 공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합창 그리고 연주 등 알찬 구성으로 꾸며있습니다. 티켓은 어른 \$10/ 아동 \$5 입니다. 문의: 각 구역장님

● 사제관 꾸미기 안내.
개미들은 겨울나기를 위해 그 작은 몸과 입으로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고 쌓아둡니다.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여럿이 모여 협동하여 큰일도 거침없이 해결하지요.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공소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어느 한교우의 큰 기증이나 성금보다도 모든 교우들의 작은 정성을 더 바라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바로 공동체의 의미가 그런것이 아닐지요. 본당이 되면 더욱 필요한 이런 개미들의 작은 정성들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10월 31일짜 현황:
세탁기 - 무명 / 진공청소기 - 류무열 / 나이트테이블등 - 박용대 / 현금 \$100 - 김현덕/ 현금 \$200 정경래 / 컴퓨터정검 모금(\$100)
필요한 품목 : 휴게실용 소파/ 에리아 러그등
문의 : 이명희 관리부장 B) 519-894-3533 H) 519-896-9628 C) 226-338-0679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성당 사용시 주의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화장실은 정문쪽을 사용하지 마시고 라이프 센타내의 화장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은 하느님의 집입니다. 항상 경건하고 정숙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친교 식사후에 어린 교우들의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3주년이 되어 갑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아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 주간 전례
▶11월 4일(화) 오후 8시, 성가롤로보르메오주교
▶11월 6일(목) 낮 12시, 연중 제 31주간목요일
▶11월 7일(금) 오후 8시, 연중 제 31주간금요일

●성시간
11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미사와 함께 성시간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미사와 기도를 바쳐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분이라도 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
사순 2주, 3주 주님의 탄생과 수난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일시: 2009년 3월10일 - 3월 24일 14박15일
순례비용: \$3,500(추가 비용 없음)
신청마감: 2008년 11월 23일(선착순 30명)

2008-43 2008. 11. 2.

위령의 날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후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사전례

해설	이정숙	차주 해설	이우원
----	-----	-------	-----

화답송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성가
입당 (2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봉헌 (214) 주께드리네
성체 (165) 주의 찬미
퇴장 (82) 주찬미

독서
11월 02일 이 민 이활란
11월 09일 장명길 장용경
11월 16일 이상재 이향숙

봉헌
11월 02일 박순웅 박복순
11월 09일 이 민 이활란
11월 16일 장명길 장용경

복사
11월 2일 구한힘 이수민
11월 9일 류지현 이현재
11월 16일 구하람 구한힘

친교
11월 2일 공소 잔치